

중국차·다기 제값은 얼마?

가격 제각각·품질 검증안된 채 마구잡이 유통

7월 농산물시장 개방... 대책 세워야

저가에는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보이차와 오펜차, 월관음, 대홍포 등이 시중에서 대량으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등 '외국차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일부 수입상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WTO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질 낮은 차와 다기가 다량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차인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소비자차 외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차 수입상들은 질이 나쁜 차를 '40~50년 된

보이차'로 둔갑시켜 수 십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기도 예외는 아니다. 시중에서 크게 인기를 끌며 2~3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는 자사호는 '중국 의흥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사(紫沙)로 만든 다기'가 아닌 일반 태토에 염료를 섞어 만든 '가짜 자사호'일 가능성이 높다. 인사동 차전문매장 '훈'의 양경년(50) 대표는 "소성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다기에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차를 우려마실 경우 그대로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특히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쿼터 내 40%, 쿼터 초과 50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었던 외국차의 차가 대량으로 수입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값싼 차가 대량 수입될 경우 연 생산량은 2천 톤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낮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5~10배 정도 비싼 국내 차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백 만 명을 헤아리는 차인과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우리 차 시장은 외국 차 업계가 넘볼만한 큰 시장임에 틀림없다. 이미 1980년부터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의 차가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일본의 다도 유품들도 국내 차 단체들과 교류함으로써 팔자를 우리 차 시장에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92년 수교 이후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중국차는 차 시장의 60~70%를 잠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 사이 인사동에는 수십여 곳의 중국차 전문점이 문을 열었고 인터넷 상에서도 외국차 전문 판매사이트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한세대 차학전공 정인오(42) 주임교수는 "현재 외국차의 수입과 유통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차시장이 개방되기 전 녹차 대중화 운동과 품종 개발 등 우리 차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31면**
 여수경 기자 snopy@buddhapia.com



절하기 힘드네 5월 5일 조계사 동자승들이 월간 <불광>과 육아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 나눔이에 앞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보기만해도 환희심 천진불들...

동자승 봉축기간 최고의 마스코트 전국 10여 사찰·단체 단기출가 봄

'천진불 동자승'. 동자승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최고의 마스코트로 떠올랐다. 동승들의 해맑고 천진한 모습이 불자들은 물론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계사를 비롯해 대구동화사, 부산 흥법사, 내원정사, 서울 봉은사 등 10여 곳이 봉축기간에 맞춰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갖고 범회, 동자승들과 함께 소년소녀가장 돕기, 탁발순례, 외국인과 연등 만들기 등 각종 행사가 나열되고

다. 동자승이 '봉축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단기 출가체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동자승이 '자비의 사절단' '불교 홍보대사' '얼굴' 역할까지도 하면서 각종 나눔 행사와 봉축현장에서는 '천진불' 동자승의 미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한 달 내내 '봉축특집'...금주 36면 발행

'현대불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봉축특집'을 연속 발행합니다. '현대불교'의 특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봉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봉축특집 주요 주제
 - ▶ 첫째 주 (5월5일자) 나눔의 손잡기
 - ▶ 둘째 주 (5월12일자)
 - 개구장이들 스님 되다 ————— 4면
 - 불교공부하는 타종교 성직자들 ————— 8면
 - <오늘의 세계불교>
 -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추구 미국 ————— 9면
 - 강의실에서 일상속으로 영국
 - 웰빙시대 흐름하는 독일 ————— 10면
 - 육바라밀의 실천 티베트
 - 유럽불교 증흥의 중심 프랑스 ————— 11면
 - 인간정토구현 나선 타이완
 - 생활속에 꽃 핀 신행 일본 ————— 12면
 - 뜨거운 수행열기 남방불교 ————— 13면
 - 빛나간 웰빙열풍② ————— 35면
 - ▶ 셋째 주 (5월19일자) 禪바람을 이어간다
 - ▶ 넷째 주 (5월26일자) 자정인사들의 초파일 고행

현대불교 구독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 (02)737-0090 대표 737-8881

통합... 이제는 '중앙신도회'

7일 조계사에서 '한몸' 선언

조계종 신도회가 양분의 시대를 마감하고 '중앙신도회'로 통합됐다.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는 5월 7일 조계사에서 신도회 통합과 나아가 방향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신도회 통합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중앙신도회는 "재가불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신도회의 정체성 확보와 조직확대 및 강화, 종법령 개정을 통한 신도회의 활성화, 통합신도회 지도력 확대 및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자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불자본 사업을 통해 신도회 조직을 강화, 정보화 사회에 맞는 불교콘텐츠를 개발하고 조직 정비를 위한 전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계종 신도회 회원들이 조계사에서 두손을 높이들며 신도회 통합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순회 개편대회를 열 계획이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의 양측 대의원과 지역·교구 신도회, 수도권 주요사찰 신도회 임원 등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백창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을 계기로 스스로의 수행자세를 점검하고 행동으로 불자임을 증명하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도현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8, 29면에서 만나세요)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Nuns within the Context of East Asian Buddhist Traditions"

Panel 1
11:30~17:00
5월 20일 목요일

한국 불교사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성과
The Roles and Accomplishments of Women in Korean Buddhist History

Panel 2
09:00~12:00
5월 21일 금요일

제도의 변화와 한국 비구니 승가의 설립
Trans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Self-invention in the Korean Bhiksuni Sangha

Panel 3
13:30~17:00
5월 21일 금요일

동아시아에서의 수행 전통과 수행의 문화적 맥락
The Lineage and Tradition of Religious Practice of in the East Asian Context

Panel 4
09:00~12:00
5월 22일 토요일

창의적 종교 표현과 새로운 가르침의 탄생
Creative Religious Expressions and Innovative Teachings

Panel 5
13:30~16:00
5월 22일 토요일

한국 여성 불자의 불교 신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Korean Buddhist Women's Spirituality and Gender Issues

사 회 자 : 조은수 (역사신학대학교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
 기조발표 : 박재환 주위 (동원대학교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교수)

일 시 : 2004년 5월 20일 목요일~22일 토요일

장 소 : 한양대신원 안방본원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양대신원

주 원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 현대불교신문사

공식언어 : 한국어와 영어(동시 통역)

문의 : 한양대신원 국제학술대회 사무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0우330-040 / 전화 031-470-3173 / 팩스 031-471-6928

http://home.hanmaum.org/conference